



예술인 열전 | 아미미술관 박기호 관장

“근대-현대, 어우러진 새작품 준비중”



“세계의 오지 여행하며 예술적 감성과 영감 얻어” 젊은 작가와 당진 고유 문화의 상생 방안 고민

오랜만에 영감을 주는 뮤즈를 만난 예술가의 얼굴. 그와 함께 낡고 큰 창고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그렸다. 시골마을에 버려진 폐교를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어쩌면 인연이란 오랜 간절함이 주는 선물인 것인지 모르겠다. 아침이슬에 목을 축이고 숲이 번창하듯, 오랜 시간 자신도 모르게 몸에 베인 갈망이 결국 서로에게 가 닿는 것. 그것이 인연인가 싶다.

아미미술관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작품 구상에 빠진 박기호 관장을 만났다.

이젤 앞을 떠난 화가, 박기호

“젊었을 때는 평면 작업을 했죠. 파리에 서도 줄곧 캔버스 앞에 있었고요. 그러다 생

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젤 앞에서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란 생각을 한 거죠. 여러 차례 한 이야기지만, 아미미술관이 제게는 큰 캔버스예요. 지금 또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박기호 관장은 1983년 국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곧 파리로 떠나 8년 반 동안 타국 생활을 했다. 예술인들의 도시, 파리에서의 생활은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한 폐교를 만났다. 지금의 아미미술관이다. 추계예술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서울과 당진을 오가던 그가 본격적으로 아미미술관이란 작업을 구상한 건, 2001년이였다. 이젤 앞을 떠난 화가 박기호의 새로운 작품세계가 시작된 때다. 폐교

는 옛 학교의 원형을 살리면서 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십여종의 나무와 꽃들은 제쳐두고 돌담까지 박 관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건 이제 알만한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아미미술관은 꼬박 10년이 걸려 세상에 내놓은 그의 작품이었다.

그런 그가 요즘 10년 전 그때처럼, 낡은 캔버스를 다시 만났다. 연거푸 되짚어도 소름 끼치는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바다와 아미사이, 오도 소금창고

“내 오랜 습관 중 하나가 새벽 드라이브요. 4시 반에 일어나서 트럭을 몰고 당진의 바닷가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조개, 뽕, 파도,

어디선가 떠밀려온 나무토막까지 모두 멋진 오브제죠. 예술은 생활 속에 있는 거잖아요. 당진의 포구는 많이 깨졌지만 정신은 남아 있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드라이브를 가는 길이었다. 송산 오도리를 지나 석문간척지를 관통해 바다로 가는 그 길은 매우 익숙한 길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원래 저곳에 저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은 길으로 보기에 그저 오래되어 낡은 창고였다. ‘저게 뭘까,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인연이 되려고 그랬다’고 말한다.

“동네 분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주인을 찾고, 처음으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선의 갈빗대를 연상시키는 내부 벽면은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타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힐 않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풍

경을 보면서도 오도에 있는 그 낡은 소금창고만 떠오르는 거죠.”

모든 건 여행지에서 시작됐다

오도의 소금창고도, 아미미술관도 그 인연은 모두 여행지에서 시작됐다. 학창시절 탐험학과가 있었다면 미대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닌 듯하다. 파리 생활을 하면서도 유럽 곳곳을 찾아다녔고, 당진에 터를 잡은 뒤에도 기회만 닿으면 비행기표를 끊었다. 될 수 있으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았다. 자연을 존중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그가 사랑하는 여행지다. 그런 곳에는 쉽게 사라지는 것이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이 낡았지만 더 아름답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6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백록담의 여름〉

》이재홍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당진지부 회원
당진사진동우회 회원

2016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박미영

면천두견주

열일곱 영랑아가씨 밤마다 두견새 되어
백일 밤 파울음 토하며 울었다네

나라세운 아버지 흠아버지
고두밥처럼 서서 말라온 병든 몸 구하소서
당신 몸에 박은 용수로 골육의 기름 짜내
그기름으로 구국의 횃불 밝히셨으니
이제라도 바람 맑은 흙 고운 아미산 돌레길
함께 걷게 하소서

핏빛 눈물 진달래꽃 따다가
천년을 이어온 안샘 물 떠다가
새벽별 담가 두견주 안쳐놓고
백일 동안 꽃보다 붉은 기도 드렸다네

진르르 달르르 두견주 익는 소리에
아미산 초승달 볼살이 오르고
효심의 생명주 따르는 진르르 달르르 소리
천만년 금강 물결의 맥으로 흐를 것이네



박미영
서정초등학교 교사
「시와 시학」신인상, 원종린문학상, 충남문학상,
제10회 공무원문예대전 최우수 국무총리상수상
〈저서〉시집 「신발論」 「해나루 당진別曲」 「별의 내력」 등

》1면에 이어서



“태국 난타섬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중국, 말레이시아, 이슬람 등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올드타운이 있어요. 하룻밤만 묵으면 서로 이웃이 되는 그런 곳이지요. 그곳에서 오래된 나무로 만든 집들을 봤어요. 베니스 비엔날레에 갔을 때도 창고를 만났었죠. 10년 만에 열리는 비엔날레의 전시장이 낡은 창고였어요. 그러다 오도에서 소금창고를 만난 거예요.”

박기호 관장은 “근대의 것을 다시 살려내어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은 현대가 요구하는 미술의 방향과도 같다”며 “복원과 창조가 어우러진 나의 작업은 평면과 입체, 회화와 설치가 어우러진 새로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도의 소금창고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면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인 작업실을 찾던 중 만난 곳이지만, 오롯이 혼자만 간직하기엔 아깝단 생각이 든다. 그는 요즘 틈이 날 때마다 소금창고를 찾아 작품을 구상 중이다. 소금창고가 공개되는 날, 그곳에서 와인파티가 열리면 좋겠다. 어쩌면 막걸리에 파전도, 맥주에 소시지도 꼭 잘 어울리겠다.

지역미술관으로 아미의 역할

사실 소금창고보다 먼저 펼쳐놓은 그만의 캔버스가 하나 더 있다. 철거 예정이었던 농협창고가 그것이다. 몇 해 전, 합덕에서 창고를 철거해 순성으로 옮겼다. 원형 그대로의 보존을 위해 백방으로 전문가를 물색했다.

“농협창고는 뼈대만 그대로 살려 아미미술관 내에 복원할 생각이예요. 바람이 통하는 그곳에서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해요. 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의도 좋을 것 같고요. 당진의 이름 없는 포구를 돌아보고 미술관에서 그것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아미미술관은 이미 매년 16만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이런 미술관의 유명세가 지역의 문화 관광과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젊은 작가들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싶다. 세계적이지만 지역적인 당진만의 트리엔날레나 당진포구와 젊은 작가들을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 모두 그런 이유다.

글, 사진 우현선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 발행인 이명남(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기획총괄 이동희 | 기획 오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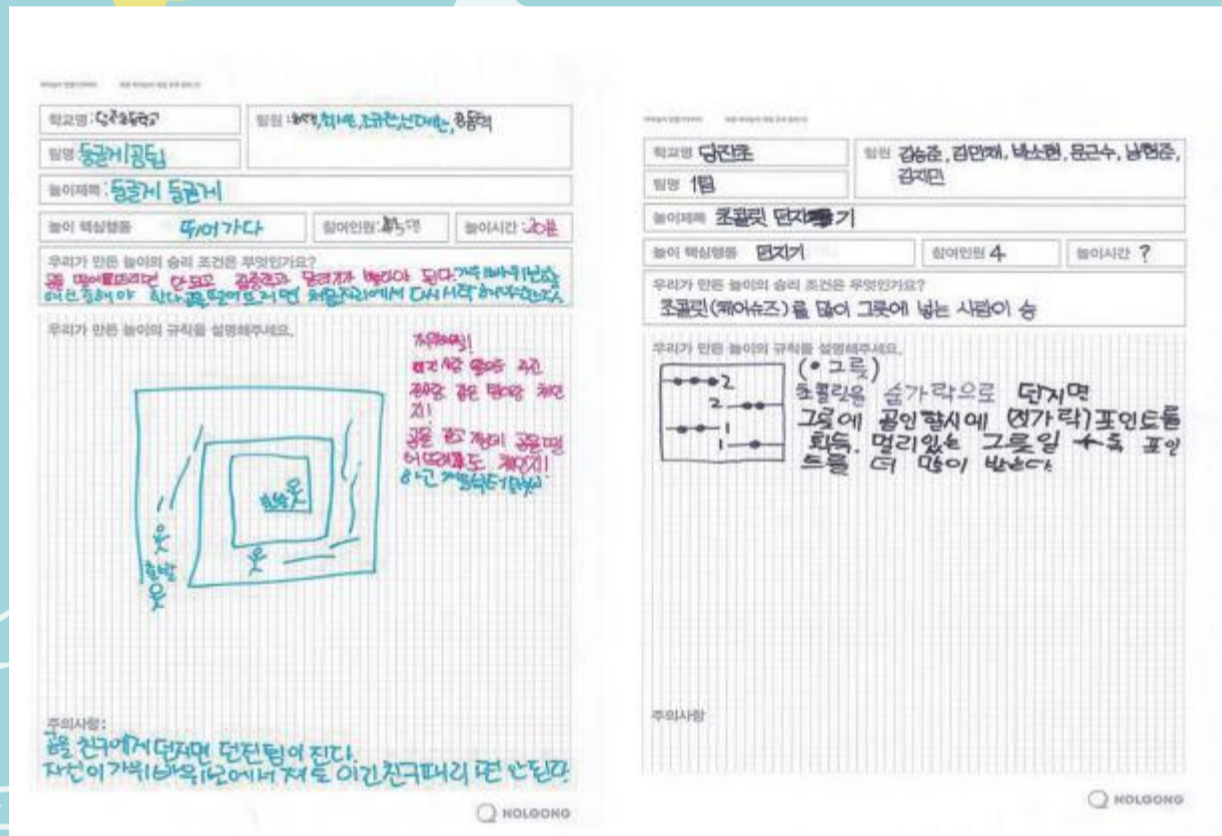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T. (041) 350-2910~6 F. (041) 354-6605/352-6896
www.dangjinart.kr / 취재 편집 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본 책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당진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당진문화예술체험교실 '내맘대로 예술톡톡'

직접이야기 분석하고 놀이만들며 창의력 쑥쑥

지역 초등학교 대상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바닥놀이와 팀커링 아카데미 기반



당진문화재단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진행된 당진문화예술체험교실 '내맘대로 예술톡톡'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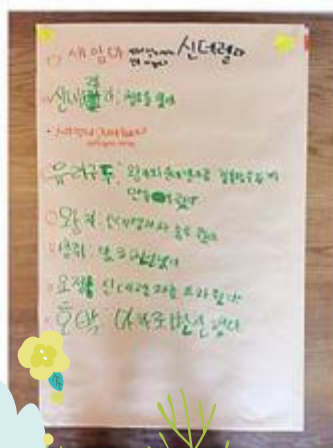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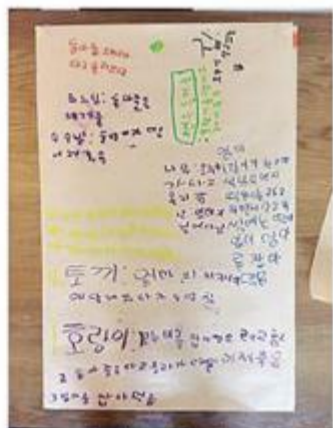
당진문화재단은 특정 장르에 한정된 예술교육을 지양하고 미적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역 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당진문화예술학교만의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당진문화재단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했다.

[내맘대로 예술톡톡]은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 공연장 및 중회의실에서

서 열렸다. 3일에 걸쳐 초등학교생 212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 제목인 [내맘대로 예술톡톡] 참여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예술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이에 걸맞게 학생들은 바닥놀이와 팀커링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교육을 받았다. 팀커링은 '서투르게 수선타다'는 뜻으로 협동과 교감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용어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예술아카데미가 방향을 맞아 유희공간이 된 예술학교를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시설 사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놀이를 만들면서 미적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기획 *it* 수대 당진의원도심재생 -3부원도심사람들

당진원도심의 살아있는 역사, 산증인을 만나다



대를 이어 원도심을 지키는 사람들과 새롭게 동지름튼 사람들 한목소리로 “유동인구 늘리는 방안, 문화예술공간 조성 필요”

인구의 도시 집중은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외곽의 확장을 불려왔다. 이 과정에서 관공서가 이전하고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 이는 곧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켰다. 당진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원도심 재생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한편 원도심 재생의 성공적인 대안으로 문화, 예술적 접근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18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이 그것이다. 이어 올 해는 <기획 it 수대>를 통해 당진 원도심 재생에 관한 이모저모를 총 4부에 걸쳐 다룬다. 지면을 통해 당진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보고 당진문화재단의 ‘당진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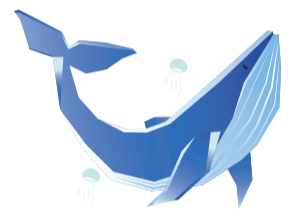
폭염 탓인지 한 낮인데도 원도심 골목이 한산하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사람들

의 발길이 줄어들었는데 날씨가 더워 여름에는 경기가 더 좋지 않다”며 한숨을 토했다. 그러면서도 당진시의 구 군청사 주변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 상인은 “당장 구 군청사 입구 원편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고 원도심 재생도 한다니 조금씩 나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원도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골목골목을 다녔다. 수년 전과는 눈에 띄게 빈 상가가 늘어났다. 당진 구터미널 로타리에서 이교다리로 이어지는 구간에 새롭

게 들어선 신축건물도 눈에 띄는 변화다. 임대되지 않아 비어 있기는 신축상가도 마찬가지다. 원도심에서 만난 상인들은 2층의 경우 빈 상가가 더 많고 오래되었다고 전했다.

원도심이 점점 공동화되어가고 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맞이를 준비한다. 상인들 중에는 수십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도 있다. 문을 연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가게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사무실도 여럿이다. 원도심의 재생을 추진하는 협의체도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글심는순서

- 1부 원도심의 역사와 재생운동
- 2부 원도심의 문화와 당진시장
- 3부 원도심 사람들
- 4부 당진문화재단의 ‘원도심문화공간 읽기’

● <로가디스> 박미현 대표와 부친(구)당일양복점 박윤식 씨

56년 전, <당일양복점>을 기억하시나요

“해방 전에는 천안 가는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로가디스>는 56년째 같은 자리에서 양복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물론 상호는 세월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뀌었고 가게 건물도 조금씩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처음 이곳에 <당일양복점>으로 문을 열었던 박윤식 씨 일가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구순을 앞둔 박윤식 씨가 33세에 <당일양복점>을 개업해 여러 상호를 거쳐 10년 전 막내딸인 박미현 대표가 지금의 <로가디스>를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군에 다녀와서 양복점을 열었어요. 그땐 당진시내에 양복점은 <당일양복점>, <금성양복점>, <호서양복점> 이렇게 세 곳뿐이었지요. 계림리사 같은 양복점들은 그 이후에 생겨난 곳이고요. 기성복이 없고 모두가 옷을 맞춰 입을 때였으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한창 잘



될 땐 기술자들이 10명도 넘었죠. 내가 제단을 하면 가게 한쪽에서 기술자들이 양복을 꿰맸어요. 은행 직원이나 교사, 공무원들이 주 고객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양복을 해 입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양복 한 벌이

쌀 세가마 값이었는데, 지금도 쌀 세가마면 양복 한 벌을 살 수 있으니... 쌀 값만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박윤식 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기성복의 유행 등으로 50세가 되던 해에 <당일

양복점>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1972년도에 오픈해 <당일양복점>과 겹했던 <제일복장> 운영에 주력했다.

“맞춤양복의 시대가 저물고 기성복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제일복장>이 그 이후로 여러차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의 <로가디스>가 된 거예요”

당진이 고향인 박 씨는 어린시절의 당진 원도심까지도 제법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해방 전에는 당진시내에서 천안으로 가는 버스가 유일한 교통이었어요. 하루에 2대가 다녔죠. 버스정류장이 바로 우리 가게 앞이었어요. 당시에 우리 가게는 철물점이었는데 내가 그걸 사들여서 양복점을 개업한 거죠. 그 당시에 우리 가게 주변에는 양조장이 있었고, 중앙약방, 포목점인 평양상회 등이 있었어요”

부친의 옛 이야기를 함께 들던 박미현 대표도 어릴 적 기억을 풀어 놓았다.

“학교에 갔다오면 항상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요. 제단대와 미싱들이 들어서 있던 가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

진에서 제일 잘 되는 양복점 중 하나였죠.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외간장을 처음 먹어 본 곳이 바로 우리 가게 앞에 살던 전) 당진시네마 주인집에서였어요. 마가린에 계란을 넣고 외간장에 비벼 먹었던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 당진시네마도 문을 닫게 됐네요”

박미현 대표는 “<로가디스>는 단골이 있는 브랜드이긴 하지만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근래에 부쩍 줄어들어 영업이 어렵기는 다른 상가들과 마찬가지로”라며 “특히 1, 2년 사이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도 여전히 비어 있는 곳이 많은 걸 보면 식당이며 옷가게며 경기가 좋지 않은 게 원도심 상가 전체의 일인 듯 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원도심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며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를 당진시에서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미성당> 김석곤 대표

44년 같은 자리에서 문을 여는 <미성당>

“기지사, 고대까지 자갈길 걸어 시내에 오던 시절”

구터미널 로타리에서 당진2교를 잇는 길에 미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1975년 김석곤 대표가 처음 문을 열었으니 벌써 44년째다. 김 대표는 40년 전 가게 앞 골목에는 주로 양장점, 양복점, 보석상 등이 들어서 있었다고 기억했다.

“누구나 알 만한 가게로는 신흥여관이 있었죠. 바로 우리 가게 앞집이었어요. 기와집이었죠. 우리 미성당도 그때 단층건물이었어요. 길도 지금보다 좁았죠. 차선도 없었고 인도라는 것도 따로

없었고요. 또 시장오거리에 있는 시민약국 자리에 우체국이 있었어요. 로타리에 있는 당진약국 자리가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라 불렀던 농어촌공사가 들어서 있었어요.”

김석곤 대표는 40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그는 “지금 우리 가게 뒤로 난 길이 하천이어서 복개가 되기 전까지 가게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다녔다”며 “동문리와 서문리를 빼놓고는 모두 논, 밭이었고 송악이며 고대

에서도 당진시내까지 걸어나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당진시네마에서 마지막 영화가 끝나면 밤 10시쯤 됐어요. 그때까지 불을 밝히고 영업을 했었죠.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로 가게 앞 길이 북적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기지사며 고대에 발길을 걸어서 영화를 보고 가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영화 구경이 흔치 않은 오락거리였으니까요. 7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죠. 기지사, 고대까지 가는 길이 모



두 자갈길이었는데 놀며쉬며 간다고들 했던 기억이 나요.”

김석곤 대표는 옛 기억을 회상하며 미성당이 가장 번창했던 시기를 떠올렸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장사가 잘 되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쇠락하기 시작했죠. 물론 예물에 관한 풍습도 달라졌지만 원도심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하나의 이유죠.”

그는 “당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묘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왕창체육사> 안창규 대표

“40년 전, 원도심은 당신의 명동”

상가번영회 초대회장 역임 42년 째 원도심에서 왕창체육사 운영

왕창체육사 안창규 대표는 오랜 세월 원도심 골목을 지켜온 터줏대감 중 한 사람이다. 당진1동사무소 앞에 체육사를 개업한 것이 42년 전, 그의 나이 25세였다. 이후 지금의 자리에서만 36년 째 왕창체육사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 체육사를 열었을 때는 가게 앞을 가로지르는 길(구터미널-당진2교)이 당신의 명동 골목이었죠. 유명한

브랜드의 스포츠매장들이 모두 이 골목에 있었어요. 그때 다 걸어나던 시절 이니까 사람도 참 많았고 장사도 잘 됐었죠.”

왕창체육사도 초창기에는 미싱사와 제단사를 고용해 직접 당진 초중고생들의 체육복을 제작해 판매했었다. 그러던 중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육복 제조업을 접고 운동기구 판매 전문점을 운영

했다.

“체육사를 처음 시작할 때만해도 경찰서며 군청 등 당진의 각종 주요 기관 단체가 모두 원도심에 있었어요. 그러다 경찰서를 필두로 기관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 그와 관련된 건축설계사무소며 각종 정부기관업무 대행업체들이 떠나갔죠. 지금 원도심에 2-3층 상가들이 많이 비었어요.”

안창규 대표는 원도심상가번영회 초대회장을 맡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한 장본인기도 하다.

“BTL사업, 전기지중화사업, 도시가스 공사 등이 모두 제가 원도심번영회장을



맡았을 때 이뤄졌어요. 그러다 시승격과 동시에 상가들이 신개발 지역으로 이탈해 나가면서 지금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당진시의 정책과 계획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는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당진도시재생추진협의회체 김충완 회장

“구군청사, 광장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 꾀한다”

“상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당진시는 2015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원도심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충완 회장은 “이전에 도시재생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일방적으로 진행했지만 이제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생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도시재생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이 주도적이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서가 이전해 가고 구 군청사 등 당진의 주요 공기관이 물밀듯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의 공동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당진 제일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공동화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김충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과 당진시가 함께 원도심을 살려보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조금씩 새로운 변화가 계획되면서 희망도 보인다”고 말했다.

“구 군청사 분관을 헐고 그곳에 당진을 대표하고 상징할 만한 광장을 조성

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광장 지하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야겠지요. 한나루장 같은 원도심 내 오랜 역사가 있는 공간을 청년 숙소나 문화예술인을 위한 곳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 당진시네마에 소극장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원도심 곳곳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원도심을 조성하고 젊은층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구 군청사에 광장을 만들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당진 시민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장은 승리봉 공원, 제2구군청사에 설립 될 예정인 가족지원센터를 거쳐 읍내전까지 있는 문화벨트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군청사와 시장오거리를 4차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겠지요.”

김충완 회장은 오래도록 원도심 재생을 위해 고민해 온 의견들을 단숨에 쏟아냈다. 이 중에는 실제 당진시와 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거나 계획에 포함된 사안도 있다.

김 회장은 “지금 당진에는 시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이 부재하다”며 “원도심이 그 공간을 마련하고 다시 당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진시 도시재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일해주고 있고 상인들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만큼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당진청년센터 최의현 팀장

“청년 고객 잡을 수 있다면 원도심 희망 있다”

나래 1일 평균 이용자, 80여명
“원도심 상권 연계 위해 식당, 카페 입점 안해”

요즘 원도심에서 가장 핫한 곳은 지난해 11월 당진 구 군청사 별관에 개관한 당진청년센터 나래다. 나래는 당진시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의 취창업과 청년 문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청년공간이다.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스터디룸과 세미나실 등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꾸준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어학, 취업 프로그램과 각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최의현 당진시 청년정책팀장은 “개관 이후 2월 중순까지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여명 정도였는데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4월에는 50여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일 평균 8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센터 나래의 개관 목적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 운영이었지만 부대효과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조금씩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지역의 경우 청년센터 내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뮤니티 공간에 카페를 연 곳도 많고요. 현대 우리 센터는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시설을 일절 들이지 않았어요. 식사할 만한 곳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원도심 내 식당을 추천해주시기도 하고 원도심 상가들과 협약을 통해 청년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 등도 생각하고 있어요.”

최의현 팀장은 “도시재생협의체나 창업협회에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청년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이뤄지게 되면 아무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

했다. “올 여름 처음 당진뽕베이장터와 함께 진행한 청년마켓도 성황리에 마쳤어요. 특히 원도심 한 북판에서 프리마켓을 열면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기 마련인데 민원 하나 없이 진행됐어요. 사전에 상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획 의도를 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최 팀장은 “앞으로 청년 센터의 외관 리모델링을 비롯해 청년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소비층인 청년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원도심 상가가 변화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당진 상권의 중심이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잘 되어야 겠죠. 특히 젊은 문화를 위주로 상인들이 함께 변화한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당진창업협회 최승규 회장

“원도심 활성화, 새로운 소비층 유입 고민해야”

“지역기업, 당진시, 원도심이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안

사무실이 당진청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당진창업협회 회원들은 원도심을 찾는 일이 잦다. 당진창업협회 회원들은 원도심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승규 회장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지역내 기업이나 회사들과 함께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안을 내놓

았다. “얼마전 회사일로 외국 출장을 갔었는데 한국의 선진 기업에 대한 견학과 교육 인증 수수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어요. 외국 기업을 초청해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연수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원도심 관광을 연계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업과 당진시가 함께 손을 잡고 공항에서 외국 기업인들을 당진으로 곧장 데려오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추진한다면

기업도 당진시도 주민들도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최승규 회장은 “원도심을 오가며 느끼는 것이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지역내 다른 상권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뤄내는 것은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며 “소비자층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으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소비자층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시에

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창업협회는 당진지역 창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연대를 위한 단체로 올해 1월 창립했다. 당진창업협회는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사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당진지역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승규 회장은 “당진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나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인들이 마땅히 정보를 교류하고 사



업의 확장이나 각종 정부 정책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무했다”며 “당진시의 청년정책위원회에 활동했던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의 창업협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 타코야끼 전문점 <김타코> 김도경 대표

“생각보다 유동인구 적어 걱정”

구군청사앞, 지난 5월 개업

타코야끼 전문점 <김타코>가 구군청사앞에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도경 대표는 20대 젊은 사장이다. 아내와 함께 구터미널로타리 인근에서 옷가게를 하다 타코야끼 가게를 창업했다. 김 대표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다. 아내의 가게 근처를 비롯해 당진 시내 곳곳을 다녔다.

“창업자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곳저곳 다녀보고 원도심을 선택했죠. 학생들을 주요 고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어요. 학생들이 하교길에 원도심을 지나갈 것을 고려했어요. 현대 막상 가게 문을 열고 보니 유동인구가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화로 주문하고 찾아가는 성인 고객이 더 많아요.”

<김타코>는 당진에서 유일한 타코야끼 전문점이다.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타코야끼 전문점이 당진에 생겼다는 소식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단골이 늘고 있다.

김도경 대표는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타코야끼 푸드 트럭을 창업하면서 비결을 전수받았다”며 “상가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익이 지나 위생이나 청결, 불법적인 면 등을 생각해가게 오픈했다”고 말했다.

“맛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 가게 변화가에서 멀리 있어도 입소문이 퍼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죠. 조금씩 단골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도 막상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원도심 상권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시청 주변이 더 개발이 된다고 하니 원도심이 더 공동화될까봐 걱정이예요.”

● <우르르통신> 안대희 대표

“소비층 불러 모을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해야”

“원도심 빈사가 청년 창업가에게 임대” 제안

당진창업협회 부회장이자 원도심에서 <우르르통신>을 운영하고 있는 안대희 대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 청년 중 한 사람이다. 안 대표는 당진원시가지상가변영회 매니저, 당진창업협회 부회장, 당진시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당진시 청년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원도심이 살아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와 정책,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 등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주소비층들이 원도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상권 강화도 중요하지만 유입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대희 대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젊은 층의 대다수가 우동동 개발지구로 넘어갔다”며 “이로 인해 상권의 이동도 늘어나 원도심에 빈상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빈 상가들을 청년 창업가, 1인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을 마련하면 어떨까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 “당진청년센터가 생기면서 일부 업종의 상권에는 활기가 생기는 것 같다”며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의류, 맛집, 음식점들이 새로 들어서기도 했고 매출도 소폭 증가했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런 현상을 볼 때 젊은층을 비롯한 소비자를 원도심으로 불러올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인 칼럼

기본과본질의중요성에대하여



이상옥
서양화가

더워도 너무 덥다. 자연을 무시하고 근본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결과물이 지금의 폭염이 아닐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이 편해지는 만큼 자연은 고통으로 변해간다.

인간은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찾고, 예술 또한 자연에서 시작되었지만 좀 더 편하게 살자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을 무시해 왔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에 의존하고 살면서 암 세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기계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의 근본적인 이치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리한 점을 찾아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과 창의력과 상상력은 무한대로 나오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기계 문명 속에서 예술도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쉬운 예로 백남준의 비디

오아트, 최우람의 키네틱 아트 등이 있다.

3년 전, 홍콩 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작년에는 화랑미술제, 올해는 부산아트페어에 다녀왔다. 연이어 아트페어를 다니면서 '미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술 하는 사람이면서 그 방향을 알지 못할 작품을 많이 접했다.

당진도 옛 모습은 사라지고 풍광 좋은 자연 속에 공장과 아파트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술, 음악, 악기 등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화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원, 예술학교 또는 개인 화실과 개인음악실 등에서 그림, 음악을 배우는 문화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떤 이는 노후의 즐거

움을 찾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는 품고 있던 예술가란 꿈을 향해 배움의 장소를 찾는다.

미술을 가르치다보면 지금 막 그림을 시작했으면서도 기본적인 것은 무시하고 집에 걸어둘 예쁜 작품만 만들어 보려는 문화생들이 종종 있다. 기본을 건너뛰면 나중에 혼자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지고 쉽게 실증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본질이 중요하고 기본, 기초가 필요한 것이다. 음악의 기본은 장단, 박자이고 미술의 기본은 드로잉, 도형의 원리 등이다. 이러한 기본을 이해하고 나면 작품구상에 폭을 넓힐 수 있고 표현적인 부분도 더욱 강화 된다. 그렇다고 기

본에 집착하게 되면 정확성, 즉 '보여주기'에만 집착한 드로잉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주제가 매혹적이더라도 생명력이 부족한 묘사에 그쳐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작품이 되어 버린다.

특히 인물 드로잉은 우리를 깊이 감명시키는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 깊은 감명과 강한 흡입력을 가진 작품들은 작가의 비범한 에너지와 은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인물 드로잉에서의 본질은 계획적인 치밀한 묘사력과 거침없는 몸짓의 발생, 그리고 감각적 테크닉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태도가 서로 경쟁하며 지속되어야만 깊은 감명을 주는 작품이 된다.

피카소, 에곤 쉴레, 폴비츠 같은

작가들의 작품 앞에 서면 깊은 감명과 함께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들의 작품에는 묘사력과, 거침없는 테크닉, 에너지, 은유적인 요소가 배어 있다. 20세기의 많은 인물 드로잉은 재현적인 방법보다는 오히려 추상적인 방법으로 집중함으로써 주관적인 의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어떠한 분야든 기본을 이해하면 작품구상에 폭이 넓어지기 마련이다. 더불어 표현적인 의미도 더욱 강화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물의 기본은 자연이다. 자연이 기본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이 살아야 그다음에 있는 법이다.

농촌문화와귀농·귀촌인

문화가 산책



유재석
전당진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전삼용2리이장
현삼용리친환경농경농조합대표

최근 전국적인 귀농, 귀촌의 열풍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인 당진시에도 귀농, 귀촌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 해온 외부 인

구의 유입으로 최근 당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소강상태에 있기 전까지 가파른 상승세에 있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로 이루어진 당진 지역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진 지역의 농촌사회는 크게 바뀌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농촌 문화의 물질, 인적 토대가 바뀌게 되고 지역 고유의 정서와 특색이 희석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농촌은 흙과 사람, 땅을 매개로 하여 농업, 농업인, 농촌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농촌 문화는 농경문화, 생활문화, 민속문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농업인과 마을의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결합하여 농촌 고유의 생활양식이 나타나게 된다.

당진 지역도 이러한 구성 요소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나름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당진 지역의 농촌 문화로 고유의 특색을 갖게 되었다. 이질적인 문화를 천천히 수용하고 자신은 조금씩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보존의 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지역(농촌)의 안정을 지키고 변화를 여유 있게 맞이하고자 하는 오랜 경험 철학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 시스템의 작동은 이른바 귀농귀촌인들이 '뒷세'라고 하여 마을 주민과의 차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인용되는데 이 또한 외부인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당진 지역에 많은 도시민과 문화, 예술인들이 귀농귀촌하면서 그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도시 생활과 문화에 익숙한 도시민들과 문화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출중한 기능을 몸에 익힌 문화예술인들의 농촌 유입은 과거의 농촌 문화가 사라져 가는 이 시점에 매우 희망적이다. 다만 이들이 농촌 공동체의 구성 요소와 농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학습과 고려가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이해 없이 도시적인 내용과 방법을 답습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외면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당진)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긴 시간과의 싸움을 거쳐야 하는 것을 귀농, 귀촌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문화(Culture)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경작이나 재배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 따라서 농업(Agriculture)을 단순히 기능이나 농업 생산에 한정해서 접근하면 많은 시행

착오를 겪게 된다.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농업 자체에 이미 문화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간과하는 점이 농업이 갖는 양면성 즉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문화로서의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토박이 농업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늘날의 농업, 농촌은 많은 변화를 거쳐 근본적인 농촌의 생활문화가 달라졌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던 농업에서 석유화학에 의존하는 공업적 생산 방식으로 바뀌고, 생산자이면서 자급자족의 주체였던 농업인이 소비자로 전락하고, 물류와 교통의 발달,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도시적 생활양식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었다. 시장을 통해 공업적으로 생산된 기계와 자재, 식료품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생산된 농산물은 도시로 대량 소비되며,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업 형

태로 바뀌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공동체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이주에 대한 환경은 조성 되었으나 일시에 많은 이주민들의 농촌 유입은 필연적으로 토착 주민들과 갈등이 야기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귀농, 귀촌인들이 소득 향상과 같이 경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새로운 농촌 문화는 형성되지 않은 채 도시문화에 편입이 가속화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동질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귀농, 귀촌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하고, 새로운 농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직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농업에서 비롯된 농경문화', '농업인에 의한 생활문화' '농촌에 있는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당진의 문화예술행사 일정



사업일자	시간	단체명	사업명	장소	비고
5월-10월		한국시낭송가협회	사랑의향기 가득한 시낭송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3시
9월 27일	19:00	당진필색소폰클럽	당진필색소폰클럽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매월
4월-12월	13:00	7080라이브스타	소년, 소녀가장독기 자선공연	삼교호 메인무대	매달 4째주 일요일
6월-9월		(사)한국생활음악협회	금요음악회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매주 금요일
4월-12월		늘푸른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당진시일원	날짜미정
4월-12월		당진주부연합해나루농악대	찾아가는 농악교실	장소미정	날짜미정
9월 6일-9월 9일		남송서도회	제17회 남송서도화원전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	
9월 8일		(사)한국음악협회 당진시지부	제8회 심훈콩쿠르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9월 18일		당진아트 챔버	제5회 정기 연주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9월 25일		레크레이션협회	삼교호 물빛바다축제 페스티벌	삼교호 야외무대	
9월 28일-10월 1일		한국서각협회 당진시지부	제15회 충남 서각예술대제전	당진문예의전당 전시실	

*일정 및 장소는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 문화회원 박명숙 씨

“한달에한번, 문예의전당으로 소풍가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다양한 장르, 수준높은 무대"
10년째 면천읍사보건강진료소 근무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 8월 초, 박명숙 씨를 만난 곳은 '면천읍성그미술관'이었다. 그녀는 1989년부터 당진에서 살았으니 당진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웃었다. 그녀의 고향은 천안이다. 박 씨는 처음 당진에 왔던 시절을 떠올리며 면천에 미술관이 생겼다는 사실에 새삼 세월의 흐름과 당진의 변화를 느낀다고 말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은 고사하고 차 한잔 마실 공간도 몇 곳 없었죠. 첫 발령 지었던 송산은 모두 비포장 길이었어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

박명숙 씨는 29년 전 송산 서정보건진료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대호지, 고대 등 농촌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일했다. 지금은 면천읍사보건강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다.

“마땅히 공연을 볼 곳도 없었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문화를 즐길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도 늘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문예의전당에서 하는 전시회 포스터를 봤어요. 브런치를 즐기며 보는 공연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2013년 5월에 선보인 ‘음악과 브런치가 함께하는 시크릿 콘서트’를 시작으로 박명숙 씨는 당진문화재단 문화회원에 가입해 꾸준히 당진문예의전당을 찾았다.

“요즘은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빼놓지 않고 보러가요. 천원짜리 공연이라고 공연 수준도 천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기획부터 공연 실력까지 최고죠. 천안이나 서산 등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볼 만큼 당진문예의전당 공연이 정말 볼 만하다니까요.”

그녀는 “반도네오나 플라멩고 같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장르의 공연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며 “오페라 〈리골레토〉같은 공연은 서울에서 비싼 입장료를 내고 봐야 하는데 문화회원 할인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동네에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박명숙 씨는 주로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문예의전당을 찾는다.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공연 일정을 확인해서 함께 가고 싶은 공연을

고르고 예매를 해요.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공연을 기다리는 게 소중한 기쁨이죠.”

오래도록 공연장을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연 문화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다.

“젊은 엄마들과 함께 온 어린 아이들 때문에 공연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어요. 핸드폰 불빛 같은 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당 내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공간을 마련하고 돌보미 교사를 상주시키면 엄마들도 다른 관람객도 모두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연일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로 박 씨도 분주한 여름을 보냈다. 농촌 지역이다보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 집집마다 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집은 에어컨이 없는 집도 많고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잘 틀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마을 어르신들이 낮에는 함께 지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 더위에 고추 따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 걱정이에요.”

10년 가까이 같은 진료소에서 근무하다보니 자연히 마을 사람들과 각별한 정을 나누고 산다. 지금이야 당진시내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해도 진료소에서 24시간 재택근무를 했었다. 한 마을에서 부대끼며 사는 진료소장은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의 주치의나 다름없다. 허니 마을 어르신들 중에는 가까이에서 건강을 살뜰히 챙겨주는 박 씨를 딸보다 낫다며 아껴주신다고

“시골 경로당에 가보면 70대 어르신들이 심부름을 도맡아 하세요. 60대분들은 젊은 축에 속해 경로당도 잘 안가시고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거죠. 면천지역은 하우스가 많아서 여름이면 피부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하우스 속에서 일하시니 피부가 상할 수밖에요.”

박 씨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며 정을 나누고 사는 일이, 문예의전당에서 즐기는 공연만큼이나 즐겁다.

글, 서인우현



문화재단 人 | 홍진웅 무대기술팀장

무대위, 뒤에숨은전문가

“무대는 관객과 공감-소통으로 만든 공간”



공연이 끝나면 무대는 불이 꺼지고 객석엔 불이 들어온다. 하나, 둘 모든 관객들이 돌아간 무대공간엔 정적이 흐른다. 텅 빈 좌석 사이로 작업등이 켜지면 하나 둘 모이는 사람들. 공연은 끝났지만 무대를 정리해야 한다. 공연이나 무대 위 행사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대, 조명, 음향 각각의 파트에서 세심한 부분들이 이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당진문화의전당(이하 전당) 무대 뒤 풍경이자 우리 재단의 무대기술팀 이야기다.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총지휘 하는 홍진웅 무대기술팀장을 만나 무대 뒤 삶을 들여다봤다.

연극, 고달픈 인생의 시작

그의 무대 인생의 시작은 무대 뒤가 아닌 무대 위였다. 충북 청주 미원면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대학 졸업까지 그곳에서 보냈다. 고3때 연극영화분야로 방향을 잡고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아버지는 육사를 가길 원했으나 저는 원치 않았죠. 고등학교 시절 꼭 연극을 해야겠다기 보다 막연한 꿈같은 거였죠. 방송출연하는거라 생각하며,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두분의 스승님을 만나 실기를 배우며 연극의 매력에 점점 빠졌죠.” 막연히 시작한 연극은 20년 동안 그의 인생 전반을 차지하게 됐다. 연극영화과는 연극, 영화, 연출, 연기, 무대장치 등 모든 분야를 공부해야 했다. 재학당시 10개의 작품을 올렸다. 그만큼 스승에게 많이 혼났던 기억은 두 배다. 덕분에 경험은 많이 쌓였다. 졸업 후 그는 충무로 영화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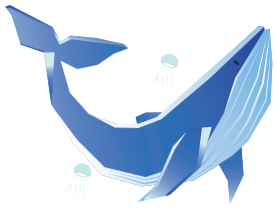
취직했다. 2년 동안 충무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영화사에 취직할 일은 자기 인생 중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백일십씨가 운영하는 세라필름 기획실에서 일했습니다. 충무로의 작은 단위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내부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연기 전공인데, 사람들은 기획 분야라고 인식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사직했어. 대학로도 생활이 안됐구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한 연기학원에서 학원 강사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30대 초반 다시 청주로 내려와 「극단 청년극장」 살림(대표)을 맡으며 10년간 연극에 전념했다. 극단은 대학시절부터 그가 창단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던 곳이다. 독지가가 지하공간을 기부해 문화공간 「너름새」라는 소극장을 운영했다. 이 시기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생활은 부인 몫이었다. 극단은 승승장구했다. 대한민국연극제 전신인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 받았다. 10여년간 연극제에 도대표로 참가했는데 매번 수상권에서 밀려난 적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충북연극제와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 남자연기상, 연출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 그가 10여년간 올린 공연은 총 60여 편. “그것은 목탁구명숙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혈맥」 같은 공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탁구명」은 스님의 고뇌, 트라우마를 담은 작품으로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이라는 평을 받았죠. 「세월이 가면」은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하지만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과거에 본 작품을 현재에 다시 보면 당시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전혀

다른 것을 느껴요. 당시에는 못 가졌던 이런 고뇌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작품 속 인물의 의식의 흐름이 깊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의 인생 중 최선을 다해 노력한 시기로 남아있다. 밤새 작품에 대한 토론과 열정, 끊임없이 연구하는 왕성한 시기였다. 그때가 청주연극의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작품을 올리면 관객도 많고, 석 달씩 공연해도 관객 호응도가 높아 장기공연도 가능했다. **공연중에도분주하게움직이는무대 '뒤'** 40초반 당진으로 오면서 그의 주 공간이 무대 뒤로 바뀌었다. 연극생활을 접고 당진문화의전당과 인연을 맺으면서부터다. 2005년 당진문화의전당이 개관하며 지역에 본격적인 문화예술공연의 하드웨어가 구축됐다. 당시 무대전문인력을 뽑아 지원한 것이 인연이 돼서 무대감독으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무대감독은 공연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 무대, 음향, 조명이 들어갈 장면마다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한다. 그러면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스태프들과 의견을 조율한다. 무대를 만드는 총괄감독이다. “무대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 무대예술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행위를 하는 수공예예술입니다. 이를 인식해야죠. 무대·조명·음향 등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공연을 보면 그런 인식 없이 버라이어티쇼처럼 합니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가 곧 창의적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알고 이해하고 토론의 과정이 필요해요. 무대는 창조육구가 생기면 흥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무대예술의 매력에 뽀빠’는 질문에는 ‘창조’라고 답했다. 무대는 반복이 없다는 것이다. 매회마다 공연이 달라 같은 무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순간순간 느낌이 전부 다르다. “무대예술은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객과의 약속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납니다. 약속구현이 무대예술이죠. 매일 연습해 템포와 감정,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해야죠. 때론 긴장해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스태프들은 긴장하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하죠.” 거창국제연극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공연도중 정전이 됐다. 어둠속에서 5분간 관객들과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 사람 잡네」라는 연극을 할 때는 권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배우가 총을 두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공연에서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무대 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무대가 매력적인 건 창조적인 일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다. 관객들이 공감하고 좋은 반응이 나오면 공연 예술종사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대감독의 역할이 짐작된다. **지역민이 편하게 이용한 공간이 돼야** 그는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객들이 공연을 보면 서로 생각하는 상이 다르다. 살아온 환경,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상들이 만들어진

다. 각자가 만든 마음속 상들이 모여면 공통된 어떤 상이 만들어 지는데 그는 이를 ‘공감’이라 표현했다. 이런 공감들이 모여 문화를 만들고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전당은 당진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돼야죠. 공연장에 대한 각종 관념들이 불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무대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질서는 잡아야 하지만 지역공연장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부터 질 높은 공연까지를 수용해야 하는 멀티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문화적 수준이란 것도 서울과 지역이 다를 것이 없어요. 작품의 공감능력은 개인차지 지역차는 아니니까요. 전국에 200여개의 공연장이 있는데 그 지역 문화를 어떻게 수용할까를 계속 고민하는 공연장이 좋은 공연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연극을 하던 시기는 무대감독을 맡고 있는 현재든 그는 인생의 상당부분은 무대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 그의 꿈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해보는 것이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정해놓은 작품이 몇 개 있다. “4-5년 전 식구들과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용궁사를 갔어요. 밤 11시에 딸이 부산 돼지국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었죠. 새벽 일출 시간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운전하면서 옛날에 했던 연극 환경을 머릿속에서 열심히 되돌리고 다시 구성하고, 그때를 후회하고, 작품을 머릿속으로 다시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용궁사에 도착해서야 퍼뜩 깨달았습니다. 운전대 잡고 미친 짓하며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 이렇게 집착하나. 항상 그런 상념들이라는게 의지와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것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무대는 한마디로 ‘소통’이라고 표현했다. 전당이 당진문화의 구심점이자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기에 경제적 논리보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당의 무대를 만드는 ‘무대기술팀’에 대한 자랑도 깨알 같다. 실력 있는 팀이라고 자랑했다. 무대팀 팀원들만으로도 작품하나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팀이라 말했다. 디지털장비로 많이 바뀌어보니 좀 더 좋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교육훈련도 열심히 한다고. 주 업무가 ‘준비’다 보니 무대기술팀은 늘 대기상태다. 기획공연이든 대관공연이든 어떤 팀이 들어와도 공연에 차질을 빚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약속이고, 또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대에 오른다는 그다. 올 가을, 당진문화의전당에서 공연을 본다면 무대 뒤를 지키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글: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사진: 김형태 당진문화재단 이사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5 - 순성면 봉소2리



순성이 사랑한 구절산과 시골마을둘레길

이른낙엽으로 가을분위기가아내는벚나무길
시골의작은미술관과마주치는기쁨

가뭄뒤단비같은가을이다. 끝날것같지않던폭염도 절기앞에 꼬리를 내렸다. 여름내 더위를 피해 실내에만 숨어 지냈다. 덕분에 옆구리에 살이 붙고 온몸이 찌뿌둥하다. 걷기 좋은 가을, 운동도 하고 풍경도 즐길 수 있는 당진의 마을길을 소개한다.

순성면민이아끼는 구절산

당진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마을을 지키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산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구절산은 순성면민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산이다. 새해가 밝는 첫날, 순성 사람들은 구절산에 오른다. 산 정상에 함께 모여 한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빌고, 떡국을 나눈다.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떡국은 산을 오른 뒤 딱어서 인지 유난히 맛이 좋다. 여럿이 모여 나누는 시골의 정까지 곁들여지니 더욱 그렇다.

면민들이 아끼는 만큼 산 주변 정돈도 잘 되어 있다. 등산로 지역 사람들이 심고 가꾼 벚나무와 철쭉 등으로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우거진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는 제일 먼저 노랗게 낙엽이 지어 가을을 알리는 것도 벚나무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농촌 풍경의 멋

구절산으로 향하는 길목은 크게 두 곳이다. 아미산에서 시작해 능선을 타고 구절산으로 가는 길과 순성면 봉소리 마을안길에서 시작하는 임도를 타고 산

을 오르는 길이 있다. 어느 곳이든 등산로 양 옆길은 벚나무가 주요 수종을 이루고 있어 낙엽 진 초가을의 멋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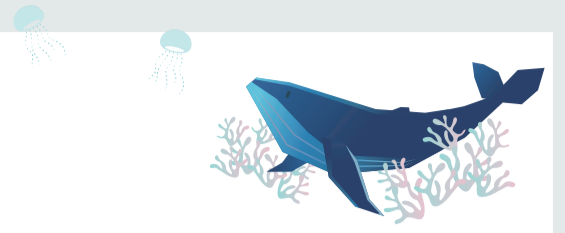
구절산은 가을날 사색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함께 어깨를 나누고 있는 아미산에 비해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여유롭다. 임도를 따라 오르는 길에 다소 파란 구간이 있지만 길지는 않다. 임도를 따라 오르면 정자가 놓인 쉼터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자, 구절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 이곳이다. 작은 아산들 사이로 잘 정돈된 농경지와 웅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의 풍경이 정겹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들이 황금물결을 이뤄 보는 이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하는 풍경이다. 맑은 날이면 서해대교까지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좀 더 걸음을 떼어 놓으면 아미산과 구절산 정상으로 향하는 갈림길에 닿는다. 여기서 아미산까지는 2.6km, 몽산까지는 1.5km 걸린다. 구절산 정상에는 육각정과 운동기구가 조성되어 있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성북리와 봉소리의 경계에 닿아 있다. 이곳으로 내려가 다시 봉소리로 향하는 마을길을 걷는 둘레길도 농촌마을의 풍경을 즐기기에 좋다.



가을옷을 입기 시작한 구절산은 오랫동안 순성면민들이 사랑해 자주 올랐던 산이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높지 않아 누구나 가볍게 산을 오를 수 있다.





구절산과 봉소리를 지나는 '백제부흥군길'

구절산과 봉소리에서 백서리로 향하는 마을 길은 내포문화숲길로 지정된 걷기 좋은 길이기도 하다. 내포문화숲길은 내포문화권의 주축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당진, 서산, 예산, 홍성 등 내포의 역사와 문화 유적, 생태자원과 마을 자연 경관 등 4개 테마를 잇는 총 연장 224km의 길을 말한다. 이중 당진시에서 포함된 길이 총 연장 71.7km이며 구절산과 봉소리가 포함된 구간의 길은 '백제부흥군길'이라 한다. 봉소리 구간은 아미산과 몽산을 거쳐 구절산에서 합덕 둔공봉으로 이어진다. 봉소리 마을길은 황금들녘과 철마다 다른 농산물이 자라는 밭들을 가로지르게 된다. 이 길에는 국립공원이나 호수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다. 농촌의 한 복판을 지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농촌 풍경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산에서 내려와 들녘과 시골 마을길을 걸으며 땀을 식힌 뒤, 다시 산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이 길의 즐거움 중 하나다.

거문돌, 검은돌마을, 봉소2리

구절산이 두 팔 벌려 안고 있는 마을이 봉소2리다. 봉소2리는 예부터 거문돌 마을이라 불렀다. 인근 마을의 논과 밭이 누런 황토색인 것과 달리 검정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구절산의 부엽토가 마을과 들에 쌓여 토양의 색이 검게 변했다고 한다. 한편 검은 바위가 있어 검은돌 마을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콩을 비롯한 잡곡을 판매하면서 <검은돌마을>이라 이름 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을입구에 주민들이 세운 비석에는 봉소리의 유래가 적혀있다. '봉두산(봉두산 해발 220m, 일명 구절산) 아래 마을 봉소리는 검은돌 마을이라고도 한다. 봉두산과 구절산의 유래는 봉두산 정상 모양이 봉황의 머리와 같아 하여 봉두산이라 하고, 가야산 기슭 연봉들이 아홉 마디에서 끝을 맺은 산이라 하여 구절산이라 한다. 봉소리란 지명은 봉황이 보금자리, 즉 동지를 틀고 알을 낳은 자리의 지세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검은돌 마을(흑석동)이란 지명은 봉두산 아래 검은 바위 돌들이 산재

해 있어 이곳 부락 단위를 흑석동이라고도 부르고 있다.(생략)

시골마을의운치를 더하는 작은 미술관

가을에 걷기 좋은 길의 종착지는 미술관이다. 시골 마을에 미술관이러니. 생각지도 않게 얻은 선물처럼, 반갑다. 게다가 봉소리에는 미술관이 두 곳이나 있다. 순성미술관과 오경덕미술이다. 순성미술관은 순성면소재지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까지 20년 동안 이곳은 지역민들의 사랑방과 같던 식당 (이조가든)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며 꾸준히 그림을 공부한 이병수 관장은 지난해 식당을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순성미술관에서는 올 가을, <이연희>전과 <이홍임> 전이 예정되어 있다. 오경덕 미술관은 합덕읍 출신 오경덕 화백이 연 미술관이다. 고 이응노 화백과 김두환 화백에게 미술을 배웠고 화가로서 입지를 다져 온 오경덕 화가는 지푸라기를 소재로 한 작품

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오경덕 미술관에서는 제1기 오경덕미술아카데미가 9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미술관에서는 현재 이군우 미술학 박사 초대개인전과 개관 4주년기념 오경덕 화백 신작 정기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글,사진우현선

순성미술관

- 문의: 010-3414-6819
- 위치: 순성면 순성로 493-12 (옛이조가든, 순성면사무소위)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휴관)

오경덕 미술관

-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연중무휴)
- 입장료: 성인3천원, 4세이상 1천원
- 위 치: 순성면 봉소안길 54-46
- 문 의: 041-358-5553

구절산이 위치한 마을, 순성면 봉소2리는 예부터 거문돌 마을이라 불렀다. 봉소2리에서 가까운 곳에 순성미술관(●)과 오경덕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다.



당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이번호에는 2018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 '생활문화예술제'에서 선정된 우수동아리를 만났다. 올해 선정된 우수동아리는 지난해에 소개된 (장구치는아이들)을 포함해 총 4개 동아리이다.

공연분야 우수동아리 원 패밀리 밴드

“생활문화예술제 덕분에 유명세 탔죠!”

7년차 다문화 음악봉사 동아리

〈원 패밀리 밴드〉는 올해 생활문화예술제 참가자 중 단연 눈에 띄는 동아리다. 우선 외국인들로 구성된 멤버들의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유창한 한국어 노래 실력에 시선이 집중된다. 예술제 참가 2년차밖에 되지 않은 신선함도 그렇다. 한데 알고 보니 지역에서 7년째 꾸준히 음악봉사를 해온 숨은 실력자들이었다.

“2011년에 당진원패밀리다문화센터 문을 열고난 직후부터 지역에서 노래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키보드 반주에 회원들이 함께 노래만 불렀죠. 3-4년 꾸준히 봉사를 하다 보니 좀 더 나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3년 전부터 지금의 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음악을 전공한 시미즈 아끼코 단장을 필

두로 회원들이 다 같이 기타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몇몇 회원들이 드럼, 베이스 등에도 입문했다. 회원들은 학원까지 다니며 악기를 익혔고, 매주 2-3번씩 모일만큼 연습에 몰두했다.

시미즈 아끼코 단장은 “이제는 악보 없이 할 수 있는 노래만 150여곡에 이른다”며 “음악 전공자들도 아니고 아마추어 동아리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만큼은 프로들 못지않다”고 말했다.

가메오카 교오코 사무국장은 “제법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지역사회에 우리를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런데 작년에 생활문화예술제에 참가하자마자 지역 곳곳에서 공연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문화예술제 덕분에 지역에 우리 단체를 알리고 다른 동아리들과 교류하며 정보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패밀리밴드는 지난해 생활문화예술제 참가 이후 지역의 다양한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진정보고 다문화봉사동아리와 함께하는 순성과 고대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매달 정기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가메오카 교오코 사무국장은 “생활문화 예술제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하나는 보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실력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라며 “외국인이다보니 곡 선정이나 발음 문제 해결이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컬담당 고사카 루미코 씨는 “우리 같은 동아리들에게는 전문가들이 마련한 화려한 무대에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생활문화예술제에 참여하면서 진짜 연



예인이 된 기본이었다”며 “게다가 우수동아리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시미즈 아끼코 단장은 “필리핀, 태국, 일본, 한국 여성들이 모여 함께하는 우리 밴드는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음악 실력과 상관 없이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다”며 “함께 하고픈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원패밀리밴드는 당진원패밀리다문화센터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밴드다. 당진원패

밀리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정의 이해 증진, 지역주민과의 연대, 봉사과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영단 스단장: 시미즈 아끼코 사무국장: 가메오카 교오코 스단원: 미우라 유미코, 오현님, 시미즈 치아키, 우치다 게이코, 고사카 루미코, 로오마 유우코, 가와무라 나오키, 아나타 토모코, 한밀라, 한디나, 다케다 가즈요, 시바타 치아키, 가따가오루, 가마자 치에, 다이몬 가요코, 아베 사오코, 마쯔우라 유미, 이은환, 이예환, 박소현, 선보영

체험분야 우수동아리 글사랑 캘리그래피

“창단 1년차 모임의 열정이 수상비결”

예술제에서 손글씨 봉투만들기 부스 인기 캘리그래피를 통한 활발한 봉사 활동

생활문화예술제에서 체험분야 우수동아리로 선정된 캘리그래피 동아리 글사랑은 올해 3월 결성됐다. 신생모임의 열정은 예술제 참여 첫 해만에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대도 안하고 있다가 수상자로 호명됐을 때, 놀랍고 기쁘죠. 뜻밖의 수상이 회원들의 열정에 더 힘을 실어 주었어요. 아마 적극적으로 예술제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덕분에 받은 상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주신 상 같기도 해요.”

김성자 단장은 “예술제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많이 느꼈다”며 “특히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를 지원받아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고 말했다.

글사랑 회원들은 생활문화예술제 기간 동안 캘리그래피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시민들이 직접 종이봉투에 손글씨를 쓰고 꾸며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연필이나 종이 보다는 휴대폰 문자와 메신저, SNS가 익숙한 요즘 시대에 체험객들은 손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적어보며 잊었던 아날로그 감성

을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떤 시민분이 아바님 생신이라며 봉투에 선물을 담아 드려야겠다고 손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적으면서 무척 기뻐했어요. 예술제가 끝난 뒤에도 흐뭇해하던 그분의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더라고요. 가족이나 연인, 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을 짚은 글이지만 직접 써보면서 행복해 했어요.”

김성자 단장은 “예술제에 처음 참여하는 거라 조금 긴장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회원들 모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사랑은 캘리그래피 동호회이지만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실력을 키우는 일 외에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캘리그래피를 통한 봉사는 회원들이 당진시지원봉



사에서 캘리그래피 교육을 받고 글사랑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시작됐다. 봉사단 중 일부가 모여 글사랑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결성한 뒤에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동복지관 체험부스 운영, 새싹키움 봉사단 활동 등 캘리그래피를 통한 재능기부 봉사가 주된 활동이다.

김성자 단장은 “9월에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전국문화예술제에 캘리그

라피 체험부스 운영팀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글씨로 피운 꽃이 지역사회를 향기롭게 만드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랑은 주부, 강사,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당진시평생학습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단원명단 스단장: 김성자 스단원: 강은선, 권미희, 이명자, 최정아, 김효순, 홍경미

전시분야 우수동아리 손수체_손글씨 쓰는 사람들

“매년 예술제 참여하며 역량 강화”

배달강좌에서 시작해 회원 절반이 전문 강사로 활동 “역량 강화 수업 회차 늘어났으면”

캘리그래피의 인기를 보여주듯, 올해 생활문화예술제 우수동아리 네 팀중 두 팀이 캘리그래피 동아리다. 그중 손수체는 생활문화예술제 첫해부터 함께해온 동아리다.

손수체는 2013년 박해옥 대표가 열었던 캘리그래피 배달강좌 수강생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이후 매년 회원전과 초대전 등을 열며 실력을 키워왔다. 그 결과 현재 17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캘리그래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사로 활동하는 회원의 수강생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회원으로 합류한 사례도 여럿이다.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에서도 개인 작품 활동이 아닌 문화체험, 역량 강화수업 등의 활동을 함께 하는 이유도 같

은 맥락이다.

박해옥 대표는 “바닥에서 서에 붓으로 글씨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회원들이 계속 인연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아리를 만들었다”며 “지금은 캘리그래피 초보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하기 어려울만큼 회원들의 실력이 강사 수준으로 커졌다”고 말했다.

손수체 회원들은 실력 향상에 생활문화예술제가 한 몫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방수미 회원은 “매년 예술제에 참여하면서 같은 걸 보여줄 수 없어 새로운 작품을 연구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선보이려고 노력했다”며 “자연스레 자기계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아리 회원들의 작

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교류도 하면서 자극이 되는 시너지 효과도 예술제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옥 대표는 “다른 보조금 지원 사업에 비해 예술제의 역량강화사업은 강사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며 “동아리에서 퀄리티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 만큼 수업 회차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은지 회원은 “생활문화예술제는 참여 동아리들이 추진단을 꾸려 참여단체 선정부터 기획까지 직접 준비하다보니 다른 지역 축제나 행사에 손님으로 가는 마음과 달리 주인의식이 생긴다”며 “5년째 참여하면서 회원들 모두 내심 수상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시상식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며 웃었다.

손수체는 그동안 회원들의 작품활동, 전



시회뿐 아니라 캘리그래피를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전개해왔다. 여수에서 진행된 독도 알리기 캠페인,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만든 부채, 달력 등의 판매로 어려운 이웃 돕기, 캘리그래피 염서 제작을 통한 재능기부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박해옥 대표는 “손글씨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품 하나를 선보이려고 같은 문구를 수백번씩 반복해 연습한다”며 “캘리그래피는 마음을 올리는 문구 하나를

선정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예술 작품”이라고 말했다.

손수체 회원들은 앞으로도 매년 가을 손수체 회원 정기전을 여는 등 꾸준한 작품 활동과 더불어 캘리그래피를 활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명단 스대표 박해옥 스회원 김원희, 황남규, 방수미, 박선희, 신희경, 강은지, 허운경, 박지은, 박영미, 김현경, 강하나, 권미희, 마지예, 정성희, 홍민경

당진문예의전당 2018 최우수문예회관 선정

200여 곳 공립 문예회관 중 '최고'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최

당진문예의전당이 2018 최우수문예회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문예회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선정하는 상이다. 전국 200여 곳의 공립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간의 운영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분야는 운영활성화, 지역 문화발전기여도, 인지도, 혁신도 등으로 공연장을 선정해 수상한다.

문옥배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은 "200여 곳 공립 문예회관 중 당진보다 시설도 좋고 조직규모도 큰 공연장이 많은데 그들과 경쟁해 정부기관에서 단 1개소를 선발하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며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환경 속에서도 충남권역 대표 공연장으로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말했다.

4년 만에 기획공연 3배 이상 증가
2017 객석점유율 94.1%

당진문예의전당은 당진문화재단이 설립과 동시에 운영을 맡으면서 변화와 성과를 이뤄왔다. 2014년 25회였던 기획공연이 2017 82회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객석점유율도 2014년 68%에서 2017년 94.1%로 늘어나 시민의 예술향유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기획공연 관

객만족도 조사에서도 90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예의전당 회원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2월 기준 1만1834명을 기록했다. 이는 당진시 성 인인구(약13만3천명)의 8.9%에 달하는 수치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장으로 변모

당진문예의전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예술문화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시민으로 구성된 당진예당 시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문화동아리 축제인 '당진생활문화예술제'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2017 빅데이터를 통한 당진문화예술 현황 조사에서 의미있는 빅데이터가 조사된 바 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당진 시민들은 대관공연보다 당진문예의전당 기획공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SNS상 당진문화예술의 담론을 주도하는 곳 역시 당진문화재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당진예당 시민오케스트라'와 '당진생활문화예술제'에도 높은 참여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공연장에 대한 시민 관심과 만족도 높아

당진의 인근도시를 비교한 결과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서산-당진

-홍성-예산 순이었으나, 문예회관에 대한 관심은 당진-서산-홍성-예산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는 서산 시민이 당진 시민보다 높지만 공연장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당진문예의전당이 서산문예회관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서 당진으로 이주해온 시민들이 당진문예의전당을 유명 공연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진문예의전당 관계자는 "시설에 비해 공연의 질, 안내서비스 등이 대도시와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특히 티켓가격의 가성비에 대한 만족도가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산 등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당진문예의전당을 찾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옥배 관장은 "일련의 결과들이 당진이 과거에 비해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시민들의 공연에 대한 만족도와 시민 참여 활동이 대도시 못지 않고 이웃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시로 변모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상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인식, 참여가 원동력이 되어 이룬 성과"라며 "당진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문화재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큰 몫을 했다"고 말했다.



(사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올가을 이 공연! 청소년 뮤지컬 <짜꿍>

청소년을 위한 하이 힐링 뮤지컬

비보잉, 랩, 댄스가 어우러진 공연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 꿈을 그린 이야기
당진시보건소와 공동 주최·주관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뮤지컬 <짜꿍>이 올 가을 당진문예의전당을 찾는다. 당진문화재단과 당진시보건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10월12일 오후3시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하이 힐링 뮤지컬 <짜꿍>은 학창시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배우들과 학생들이 함께 호흡하는 뮤지컬이다. 뮤지컬 <짜꿍>은 춤과 음악이 결합된 이야기 전개로 학생과 배우들이 함께 즐기며 각자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학창시절 누구나 갖고 있던 고민들을 한

편의 뮤지컬로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감성적이고 친화적으로 해결해나감은 물론 친구들 간의 우정이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걸 일깨워 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연의 무대는 주인공 철이가 다니는 학교다. '공부도 운동도 못하는 철이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학교 대방인 장군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해 더욱 괴롭힘을 받는다. 하지만 철이는 집이 가난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다. 힘들 땐 신나게 춤을 추며 꿈을

키워간다. 항상 일등만 하는 짜꿍 민지는 매일 당하기만 하는 철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장기자랑에서 멋진 춤을 선보인 철이를 보고 반해버린다. 어느새 철이의 편이 된 민지와 그런 민지를 보며 또 다른 자신감을 갖게 된 철이.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이가 불량배들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도망가고 철이만 끝까지 남게 된다. <짜꿍>은 청소년들의 우정과 사랑, 꿈을 감동적이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짜꿍>은 현란한 비보잉, 경쾌한 탭댄스, 흥겨운 랩과 노래가 어우러진 뮤지컬이다. <짜꿍>은 학생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공연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된다. 공연 후 배우와의 토크 타임을 통해 취업 및 진로에 대해 묻고 답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당진문화재단뉴스

● 문화가 있는 날

6월, 예풍실내악단의 (풍류)



6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예풍실내악단의 <풍류>가 공연됐다. 6월27일(수)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 예풍실내악단은 다양한 장르의 전통음악을 선보였다.

예풍은 음악을 함에 있어 예를 다해 풍요로움을 쌓아 간다는 의미다. 예풍실내악단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연주단체로 가부악이 함께하는 전통의 연주형식과 반주음악 및 기악곡의 연주활동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음악 본래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다.

이날 예풍실내악단은 'fly to the sky', '판소리수궁가', '장타령'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다.

7월, 마임판타지아 (몸짓)



7월 25일(수)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정상의 마임이스트 3인이 연출하는 마임판타지아 <몸짓>이 진행됐다.

마임이스트 이두성, 이정훈, 이태건 씨가 70여분 동안 마임 공연을 펼쳤다. 특히 대중에게 쉽게 소개되지 않는 마임 공연임에도 티켓이 조기 매진되어 추가오픈이 진행되었으며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공연 내내 뜨거운 박수 갈채로 호응했다. 이번 공연은 당진문화재단이 직접 프로그램 및 무대, 출연진 섭외, 음향 등 공연 전반에 직접 참여해 제작했다.

8월, 이틀간 V.O.S 콘서트



V.O.S Concert가 8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개최됐다. 공연은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V.O.S는 2004년 결성된 남성그룹으로 <눈을 보고 말해요>, <매일매일>, <부디>, <Beautiful Life>, <시한부> 등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들로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29일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티켓이 조기 매진되면서 28일 공연이 추가로 진행되기도 했다.

● 브랜드공연 [CINE LIVE]

6월, <미스사이공>



당진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공연 [CINE LIVE] 6월 공연으로 <미스사이공>

이 무대에 올랐다. 6월21일(목)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 공연에는 김혜미, 윤담, 김가은 등과 펠리치타 앙상블, 챔버앙상블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을 맡은 김혜진 교수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예술학부 교수로 대중예술 및 공연예술 콘텐츠 제작 전문가다.

[CINE LIVE]는 뮤지컬 및 음악영화 상영과 더불어 라이브 음악 및 댄스, 연극 등을 병행하는 신개념 플라보 공연이다. 특히 당진문화재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무대 세트까지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다. 영화 상영과 함께 수록된 음악들을 라이브로 들려주고 설명까지 곁들여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7월, '레미제라블'



7월 브랜드공연 [CINE LIVE]의 주제는 '레미제라블'이었다. 7월26일(목) 진행된 공연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곡 'I Dreamed a Dream'을 비롯해 'Castle on a Cloud', 'On My One' 등 영화음악이 라이브로 공연됐다.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140분 동안 펼쳐진 공연을 감상하며 모처럼 폭염과 열대야를 잊었다. 브랜드공연은 전석 무료다.

8월, '보디가드'



당진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공연 [CINE LIVE]의 마지막 무대가 지난 8월23일 진행됐다. 뮤지컬 보디가드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지난 4회차 연속 전석 매진과 관객들의 화차 증가 및 객석 추가 오픈 요청에 따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1층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문화배려계층 및 공익 관련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CINE LIVE]는 정기적 공연개최를 통한 브랜드화와 공연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8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

'롤루랄라 문화작당', 5월-11월



당진문화재단이 2018 생활문화활동가 육성사업을 개최했다.

[롤루랄라 문화작당]은 이문교육에서 프로젝트 기획, 실습까지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생활문화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이다.

문화사업 활동 유경험자, 생활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당진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 문화 그리고 지

역을 매개로 문화적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확장할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육성사업은 문화기획의 이해, 프로젝트 기획워크숍 실행 등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교육단체와 협력해 추진되었다. 프로젝트 실행 시 밀착 멘토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활동 모색을 위해 재단사업 및 지역내의 관련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당진문화연대 나눔콘서트 개최

7월-11월, 매월 1회 정기 공연 시민사회문화단체 연계사업 공모 선정



당진문화재단과 시민사회문화단체의 연계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진문화연대 나눔콘서트> 첫 공연이 지난 7월24일(화) 열렸다.

당진문예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공연된 콘서트에는 밴드 조오타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밴드 조오타의 멤버들인 바리톤 김태선, 국악기 박지영, 가양금 이언화, 타악기 조수민, 기타·베이스 이정엽, 키보드 강수연 씨가 무대에 올랐다.

당진문화연대와 당진문화재단이 공동주최, 주관하는 이 콘서트는 2018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뚝배이장터 찾아가는 당진문화재단

시민참여형 (침침체리) 공연



당진뚝배이장터에서 당진문화재단이 특별기획한 시민참여형 공연 <침침체리>가 진행됐다.

당진문화재단은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향유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문화 활동을 육성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이날 뚝배이장터는 당진시 청년정책팀과의 협업을 통해 '당진청년마켓'과 통합 운영되어 시민들의 참여 여느때보다 더 많았다. 장터를 찾은 시민들은 마임과 퍼포먼스 공연으로 진행된 <침침체리> 공연을 함께 즐겼다.

● 키즈스테이지

가족뮤지컬 (팅커벨의 백설공주)

키즈스테이지 <팅커벨의 백설공주>가 지난 8월4일 두 차례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졌다. 극단 셰익스피어가 선보인 이날 공연에는 36개월 이상의 어린이 관객과 가족들이 객석을 채웠다.



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뮤지컬로 꾸며진 공연은 우리에게 익숙한 백설공주 이야기를 팀커벨이 진행자로 등장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진문화재단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유니세프 선정 '아동친화도시 당진'에 걸맞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올해 새롭게 키즈스테이지를 기획했다.

지역 곳곳에 (찾아가는 콘서트)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서 문화공연 청소년을 위한 (늘 푸른 노래) 콘서트도 진행



당진문화재단이 2018 찾아가는 문화 선물 (찾아가는 콘서트)를 지역 곳곳에서 진행했다.

지난 8월7일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한 콘서트를 시작으로 지역내 어린이집, 당진노인복지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공연을 펼쳤다.

관객 연령대에 따라 공연 프로그램을 달리해 어린이 집에서는 동요 및 애니메이션 주제가, 복지시설에서는 우리 가곡 및 트로트 등이 공연됐다. 무대에는 바리톤 유진호, 소프라노 김민수, 바리톤 백경석, 피아노 김성희 씨가 올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콘서트 - 늘 푸른 노래>도 진행됐다. 당진시도래상담연합회 워크샵에 1부 공연으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렸다. 7월28일 열린 콘서트에서는 뮤지컬 음악, 영화 OST 등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이 공연됐다.

치맥콘서트 - 한여름밤의 향연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와 공동 주최



당진문화재단이 (사)한국생활음악협회 당진지부와 함께 치맥콘서트-한여름 밤의 향연을 개최했다.

8월17일 금요일밤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찾은 시민들은 주최측에서 제공한 치킨을 먹으며 음악과 영화를 감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야외공연장 최다관객으로 예상되는 950여명의 시민이 공연장을 찾았다. 관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 여름밤 콘서트를 즐겼다.

생활음악협회 회원들과 함께 유명 대중가수 김동명 (그룹 '부활' 보컬) 씨가 무대에 올라 공연이 풍성해졌다.

문화회원가입안내

- 입장권 구입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회원1인 포함 4매)
-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주최되는 공연에 한하여 10~30%까지 할인하여 드립니다.
- 회원전용 SNS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공연 및 전시 등 관련 행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회원 할인 혜택은 연회비 납부확인 후 즉시 적용됩니다.
- 입회비(연 회비 1년 10,000원 / 2년 15,000원 / 3년 20,000원)
-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www.dangjinart.kr로 접속하시면 회원님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예매안내

- 전화예매 : 041)350-2911~4
- 방문예매 : 평일 09:00~18:00
- 인터넷예매 :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www.dangjinart.kr

● 찾아오시는 길

(31774)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TEL 041)350-2911~4 FAX 041)352-6896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2018 대외협력 공연전시사업

찾아가는 콘서트

개그 핫 콘서트

2018. 9. 15 SAT 14:30
당진시종합복지타운 야외무대



이광섭 | 이동운 | 홍순목 | 변승운

| 주최·주관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문의 | (041) 350-2911~4



9월 당진 돌뱅이장터와 함께하는 거리극 공연

- 공연명 : 작전명 탈출(Code name : Escape)
- 아티스트 : 정슬기
- 일시 : 2018. 09. 22. 토. 16:30
※ 공연시간은 당일 행사 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소 : 당진동 주민센터 앞
- 공동주관 : 당진문화재단, 당진시 돌뱅이장터운영위원회
- 문의 : (041) 350-2914

2018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

시민의 주체적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민 참여형 행사 (돌뱅이장터 등)와 시민사회문화단체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 및 공동주관,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10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특별한 감성의 싱어송라이터

7080 레전드 시리즈

조덕배



찬조출연 : 행복을 노래하는 가수 윤오(YUNO)

2018. 10. 31 WED 19:30
당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특설무대

| 주최·주관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 문의 | (041) 350-2911~4 | 예매 | www.dangjinart.kr | 티켓 | 전석 1,000원 | 관람권장연령 | 초등학교 이상 (초등학교 이하도 관람권을 구입하셔야 입장가능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은 당진문화의전당이 **신속**의 강동이라는 부제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합니다.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당진문화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특별콘서트

Diva Of Diva

혜은이

2018. 10. 27 SAT 19:00
당진문화의전당 대공연장

주최·주관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문의 | (041)350-2911~4
예매 | www.dangjinart.kr
티켓 | 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할인 | ▶ 문화회원(4매) · 예술인패스(본인만적용) 30%
▶ 고등학교 이상(학생증 지참)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20세~만24세 이하(신분증 지참) 20% 본인만 적용
▶ 경로(만65세이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3급) : 본인 및 동반1명,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증, 의상지(1~2급)증 소지자 : 본인 및 동반1인 적용
※ 해당증빙자료(신분증, 학생증, 예술인패스,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필수 지참.
이 지참 시에는 현장에서 지참 지출 후 입장가능.

